



직원이 최고의 자산이다! 직원들을 위한 투자계획 마련하고 지금 당장 이행하라! 투쟁승리!

투쟁속보

총파업5일차

2021년 9월 6일 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노재욱

총파업 5일 차엔 턱없이 부족한! 임금 2.51% + 휴가비 30만원

대표교섭 진행하여 휴일대체 합의!

임금 논의 중 결렬, 두 가지 이외 논의 하지 못함.

1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린 고대가 겨우 3%?

병원	순이익	임금인상률
고려대	1,014억	2.51% + 휴가비30만원
아주대	444억	3.25%
경희대	-264억	2.7%
강동성심	-80억	2.8%
아산		5.8%(타결격려금 기본급 50% 포함)

고대의료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경희대는 임금 2.7%인상에 합의했다. 아주대는 3.25%인상했으며 병원의 의료수익은 444억이다.

그렇다면 1,014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의료수익을 낸 고대의료원은 적어도 7% 이상은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는가? 엄청난 의료수익을 뒷주머니에 차고 직원들 앞에서는 적자라는 이유로 1.8%를 제시하더니 우리 파업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고 있으니 2.5%로 올려주는 것인가? 작년 동결임금까지 된 상황에서 올 해 2.5%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안이다.

노동조합이 하루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금액이 23억이다.

의료원의 1일 발생하는 수익은 23억 원 정도다. 결국 파업으로 인해 매일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의료원은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

하계휴가비 30만원의 경우도 이 조건이 터무니없다.

7월 급여 지급일 기준 1년 이상 근무자라는 단서조건이

달려있다. 도대체 똑같은 직원인데 왜 입사연수로 인해 불이익을 봐야 하는가.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5명? 1년에 15명씩 남은 1,700여명이 정규직 되려면 113년이 걸린다!

3개 병원 합쳐 비정규직 숫자가 1,700여명에 이른다. 20%가 훌쩍 넘는 비율에 겨우 15명? 영양팀 한 부서의 절반도 못 채우는 먼지같은 숫자다!

다른 병원 다 있는 휴일대체! 지금에서야 주면서 생색내지마라! 이 요구를 핑계로 임금까지 깎아버리는 의료원! 관공서 공휴일 근무시 교대근무자 대체휴일 부여 및 통상임금 50% 지급

교대근무자의 경우 휴가가 항상 모자르다. 그래서 국경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150%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지만 결국 휴가가 하나 짧리게 된다.

이러한 요구안에 대한 의료원 답변은 휴가를 너무 많이 준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본 오프 하나가 더생기는 방식은 모든 사립대들이 다하고 있고 우리만 남은 요구안인 것이다. 3교대 간호사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면 이 사항은 무조건이어야 한다.

의료원이 배짱을 뽐기는 지금, 현장에서는 24시간 내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 말리며 근무하는 수간호사와 지원인력의 생명이 깎여가고 있다.

더욱더 열 받는 것은 병상가동률을 낮추지 않고 수간호사를 포함한 외래 간호사 등이 환자를 보고 있다. 수간호사들은 12시간 근무에 더해 환자를 빼지 않아 24시간까지 일하게 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신규발령을 받은지 하루 밖에 안된 간호사가 근무인원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현재 줄어들지 않은 환자로 인해 어려운 것은 비단 직원들뿐만 아니라 실제 진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환자에게 더 큰 문제이다.

몇 날 며칠 수술 한 번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에게, 강제 퇴원을 시키는 환자들에게 노조의 파업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해 퇴원한다는 환자에게 보건의료노조파업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책임은 의료원이 져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재단이 나서야 한다!

익을 내는 병원으로서 우리의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더 이상 비정규직을 늘리지 않고, 단협에 명시된 정·명퇴 사직자리에 정규직으로 충원을, 다른 병원보다 덜 쉬고 더 일하는 간호사들에게 다른 병원만큼의 휴식과 보상을, 그리고 노동존중과 직원존중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한편, 교섭해태를 저지르고 있는 의료원의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재단이 나서야 한다.

우리지부는 오늘 재단 앞 전 조합원 투쟁을 시작으로 파업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투쟁을 다할 것이다.

파업 4일 차 이모저모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다. 1년에 1,000억 원 이상의 수

#요즘유행_셀프투쟁! #안산_간호사_투쟁승리_결의대회! #구로_파업참가자_조출선전전

#온라인_파업출정식_마무리_집회

간호교대근무 개선하라! 인산병원 간호사 파업투쟁

